

전북, 22년 연속 '종합 4위'

전국동계체전서 득점 590점

'전국 최강' 바이애슬론 출전 선수들 메달 획득으로 효자노릇 '특목' 바이애슬론 등서 박희연 4관왕, 김용규·정세은·김하빈 3관왕 차지

전북 선수단이 22년 연속 전국동계체전 종합 4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18일~2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은 금27개, 은26개, 동16개를 획득하며, 종합득점 590점으로 22년 연속 종합 4위를 달성했다. 이번 동계체전에서 전북은 종합 4위 목표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동·하계 강화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전북체육회와 도교육청에서 우리 선수단의 전력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경기력 향상에 만전을 기했다. 전북은 타 시도(강원, 부산)에 비해 스키(알

파인, 스노보드)와 빙상(스피드, 피겨) 종목의 출전선수가 부족해 다득점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으며, 단체종목(컬링, 아이스하키)에서도 1~2회전에서 강팀을 만나 종합 4위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북선수단은 사전경기로 치러진 바이애슬론(일반부) 종목에서 러시아 귀화선수들의 대회 참가로 인해 개인전 메달획득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회 중·후반 계주경기에서 뛰어난 팀워크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금3, 은2, 동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회 다관왕을 살펴보면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박희연(안성중) 선수가 4관왕을, 김용규(무주군청), 정세은(안성

초), 김하빈(설천중) 선수가 각각 3관왕을 했다. 또 스키 알파인에서 최태희(설천중), 바이애슬론에 최두진(무주군청), 이현주(안성고), 김선수(도체육회), 고은정(도체육회),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 하현성(무풍중), 한성현(설천중), 이민주(무주초), 정영은(무주중), 김가은(안성중) 선수가 각각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전북바이애슬론 선수단이 금15, 은11, 동6개를 획득, 11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경사를 맞으며 전북선수단이 종합 4위를 하는데 효자노릇을 토포했다.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11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한 전북바이애슬론 선수단의 선전은 연맹·지도자·선수들이 하나 되어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물이다"며 "특히, 무주군은 선수 수급에 있어 군 단위 지역의 한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나무 선수육성과 탄탄한 선수층을 구축



지난 18일~2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22년 연속 종합 4위를 달성했다. 사진은 전북 선수들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지금의 초·중·고·일반부를 연결하는 선수육성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계체전에서 바이애슬론 종목으로 편승된 전북의 전력은 동계종목 강도로서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향후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종목의 선수 저변확대와 열악한 선수층 육성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또 선수들

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용 경기장 신설 및 확충 등을 통한 전력강화가 요구되는 대회였다. 정강선 회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북이 동계종목 강도로서 위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수 저변확대와 시설 확충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피겨 간판' 유영 동계체전 여중부 金

싱글A조 프리스케이팅서 138.14점
전날 쇼트프로그램 75.21점과 합해
총 213.35점 받아... 이해인은 은메달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유영(16·과천중)이 제101회 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영은 지난 21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중등부 싱글 A조 프리스케이팅에서 138.14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75.21점)과 합해 총 213.35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70점을 넘긴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2.90점, 예술점수(PCS) 66.24점, 감점 1점을 받았다. 트리플 악셀을 뛰다가 빙판 위에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지만, 국내 여자 싱글 선수 중에 유일하게 트리플 악셀을 구사하는 유영은 가볍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피겨 여자 싱글 유망주 이해인(15·한강중)이 204.71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8.96점으로 2위에 오른 이해인은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71.67점, PCS 64.08점을 합해 135.75점을 받아 순위를 유지했다. 유영은 쇼트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트리플 악셀을 깔끔하게 성공하지

는 못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던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트리플 악셀을 뛰다 넘어져 기본점이 6.40점으로 낮아지고, 수행점수(GOE) 3.20점을 잃었다. 여기에 감점 1점까지 떠안았다. 하지만 실수는 여기까지였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GOE 1.30점을 챙긴 유영은 트리플 토투프까지 무난하게 소화했다. /뉴시스

유인탁 신임 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국가대표 레슬링 감독 출신 체육회, 임원진 42명 구성 완료

새로 임명된 유인탁 사무처장은 제23회 LA올림픽대회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며,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국가대표 레슬링 감독, KBS 레슬링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사무처장은 현재 전주대학교 체육학과 객원교수로 활동중이다. 유 사무처장은 체육원장 경험과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전국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체육의 실무를 책임지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데 앞장서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2020 사업계획 및 예산, 제101회 동계체육대회 결과 등이 보고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유인탁 신임 사무처장을 선임하는 등 임원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2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새로 선임된 부회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원은 정강선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5명과 이사 34명, 감사 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교육계, 시군체육회, 비영리법인(연륜계·학계 등) 등 고르게 구성됐다. 임원들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3년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유인탁 전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의 임명동의 건을 통과시켰다.

검찰, '성폭행·횡령 의혹' 정종선 전 축구감독 구속기소

검찰이 성폭행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지난 12일 정 전 회장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

비기일은 오는 3월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학부모들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이 돈을 받을 때 충무 역할을 한 박모씨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